지난 12일 공연을 끝으로 광주시향을 떠난 유미희, 채면석, 박광미씨(왼쪽부터).

"광주시향은 시민들의 것 따뜻한 애정 보내주세요"

채면석·유미희·박광미씨 정년 퇴임

채, 러시아 지휘자 니콜라이 무대 기억에 남아
유, 시민 518명과 말러의 '부활' 4악장 인상적
박, 챔버 앙상블로 청소년·소도시 음악회 계획

지난 12일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린 광주시립교향악단 정기 공연 현장. 무대에 선 80여명 연주자 가운데 유독 눈길이 가는 단원들이 있었다. 이날 공연이 광주시향 단원으로 마지막 무대였던 세 명의 연주자들이다. 더블베이스 수석 채면석, 제2바이올린 상임단원 박광미·유미희씨에게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6번'은 단원들과 함께 호흡을 맞춘 마지막 곡이었다. 정년(58세)으로 30여년 넘게 몸담았던 시향을 떠나는 이들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제2의 음악 인생을 시작한다.

"35년간 늘 섰던 무대였는데 떠난다고 하니 많이 아쉽죠. 좀 더 최선을 다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도 들구요."

박광미씨는 조선대 출신으로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전신인 시민교향악단에서 비상임으로 활동하다 1980년 정식 단원이 됐다. 박 씨는 2010년 5월 구자범 지휘자와 윤이상 곡 '광주여, 영원하라' 연주했을 때를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꼽았다. 또 연주회를 위해 찾았던 오사카문화회관의 음향시설, 관객 수준, 연주자를 위한 시설 등을 포함한 탄탄한 클래식 문화 환경도 인상에 남는다고 했다.

1996년부터 3년간 미국 듀크대 음악대학원 연수프로그램에 참여, 많은 것을 배웠다는 박씨는 IMF로 인해 연수프로가 사라져 아쉽다며 후배 단원들에게도 이런 연수 프로그램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1980년대 여성지휘자였던 한니 헨닝과 함께 다양한 고전음악을 연주했던 기억이 나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단원이 많지 않아서 적은 인원으로도 다양한 연주를 들려주고는 했죠. 해외연주자들과 교류도 잦은 편이라 챔버 앙상블 활동을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회를 많이 기획하고 싶어요. 또 전남북지역 소도시에서 음악회를 열어 사람들이 클래식과 친해질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서울 출신으로 광주와 아무런 인연이 없던 채면석씨는 1988년 시향에 입단했다. 총신대 출신으로 KBS교향악단과 코리안 심포니에서 활동했던 그는 "처음 내려올 때만 해도 광주에 이렇게 오래 있을 줄은 몰랐다"며 "마지막 공연 때는 참 여러가지 일들이 스쳐지나며 세월이 이렇게 흘렀나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직 실감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채 씨는 지휘자 니콜라이 디아디오우라 지휘자와 호흡을 맞췄던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러시아 출신 지휘자답게 차이코프스키 등 러시아 음악의 해석에는 최고였고, 특히 저음 파트를 중요시한 지휘자 덕에 더블베이스주자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광주시향은 시민들의 것입니다. 시민들이 떠나버리면 존재 의미가 없어요. 단원들이 시향을 좀 더 나은 오케스트라로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관객들이 가장 무섭죠. 요즘에는 유투브를 통해 세계적인 명연주를 들을 기회도 많아 관객들의 귀가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으니까요. 광주 시민들도 우리 시향을 따뜻한 애정을 갖고 바라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광주대 출강과 레슨에 힘쓰며 다양한 실내악 연주에 참여할 예정인 채씨는 척추가 좋지 못해 연주활동을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게 아쉽다며 기량 연마와 함께 최고의 몸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연주자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했다.

제2바이올린 주자로 활동했던 유미희씨는 박씨보다 1년 늦은 1981년 입단했다. 그녀 역시 대학 시절 광주시민교향악단 연구단원으로 활동했었다.

"연주할 때는 몰랐는데 무대에서 내려오고 나니 많은 생각이 드네요. 오랫동안 함께 해준 동료 단원들에게 감사하고 좋은 지휘자들을 만나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떠난 자리를 훌륭한 후배 연주자들이 채워주길 바랍니다."

유씨는 뛰어난 음악적 해석으로 광주시향의 실력을 끌어올린 니콜라이 지휘자 시절과 함께 구자범 지휘자 지휘로 광주시민 518명과 함께 말러의 '부활' 4악장을 연주했던 공연을 잊을 수 없는 무대로 꼽았다.

유씨는 기회가 닿으면 종교음악을 본격적으로 공부해볼 생각이며 한달 전부터는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 두었던 국악기 해금을 배우고 있다.

한편 하반기에는 첼로수석 박문경, 제2바이올린 차석 유건우, 첼리스트 여경자씨가 광주시향을 떠날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조선대 김주선씨
'문학과사회' 평론상 수상

조선대 대학원 국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김주선(33) 씨가 계간 문예지 '문학과사회' 제15회 신인문학상 평론부문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주목받는 젊은 소설가 박솔뫼의 작품을 분석한 평론 '증언의 아카이브—박솔뫼론'.

이 평론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자신이 생각하고 성찰한바 이상은 쓰지 않는 겸손함, 버릴 것도 더 채울 것도 없이, 군더더기란 찾아볼 수 없는 간결성, 그리고 그 의미의 정확함, 텍스트의 고유한 특징과 의의를 드러내려는 목적 외에는 어떤 욕심도 삼가려는 절제의 태도는 글을 읽는 내내 그만의 미덕으로 다가왔다. 무엇보다 세대적 공통감각을 발휘하여 텍스트의 무의식을 예리하게 간파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비평가로서 큰 장점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졌다"는 평을 받았다.

김주선 씨는 "스물세 살부터 평론 공부를 시작하여 10년간 준비했는데 막상 등단하고 보니 부족한 점이 많다고 느낀다"며 "앞으로 많은 실패를 하면서 좌절을 겪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문학을 평생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김 씨는 화순 출생으로 2009년 조선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2013년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성인·어린이 국악 수강생 모집
빛고을국악전수관 30일까지

광주 서구 빛고을 국악전수관이 주민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제53기 국악문화학교 및 방과후 어린이국악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다음달 1일부터 9월22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 국악문화학교는 민요, 판소리, 가야금, 대금, 가야금병창, 장고, 고법, 해금 등 8개 강좌를 초·중급반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또 초등학생을 위한 가야금, 해금 등 2개 어린이강좌가 운영된다.

수강을 원하는 주민 및 어린이는 오는 30일까지 서구 빛고을 국악전수관에 방문 또는 전화신청하면 된다. 각 과정별 정원은 20명 내외다. 수강료는 3개월에 5만원이다.

문의 062-350-45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100만유로 상속 위해 가짜 결혼생활

유·스퀘어문화관, 프랑스 '웨딩스캔들' 7월 19일까지

프랑스산(産) 유쾌한 코미디극이 온다.

유·스퀘어문화관은 동산아트홀에서 연극 '웨딩스캔들'을 공연한다. 오는 7월 19일까지 평일 오후 7시 30분, 토 3시·7시, 일 오후 3시.

2011년 프랑스에서 초연한 'Le Gai Mariage'이 원작인 '웨딩스캔들'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 무대에 오른 작품이다.

'웨딩 스캔들'은 결혼은 싫고 연애만 하고 싶은 바람둥이가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상속받을 수 있다는 유언 때문에 가짜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소동극이다.

바람둥이 앙리는 1년 동안 결혼을 지속해야 100만유로를 상속해주겠다는 고모 유언 때문에 무명 배우인 동성 친구 도도와 결혼을 한다. 하지만 앙리 앞에 우연히 나타난 이상형 엘자 때문에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꼬여만 간다.

티켓가격은 3만원. 예매시 할인 혜택. 문의 062-360-843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지역문화인력양성 기관 선정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통해 광주전남을 총괄하는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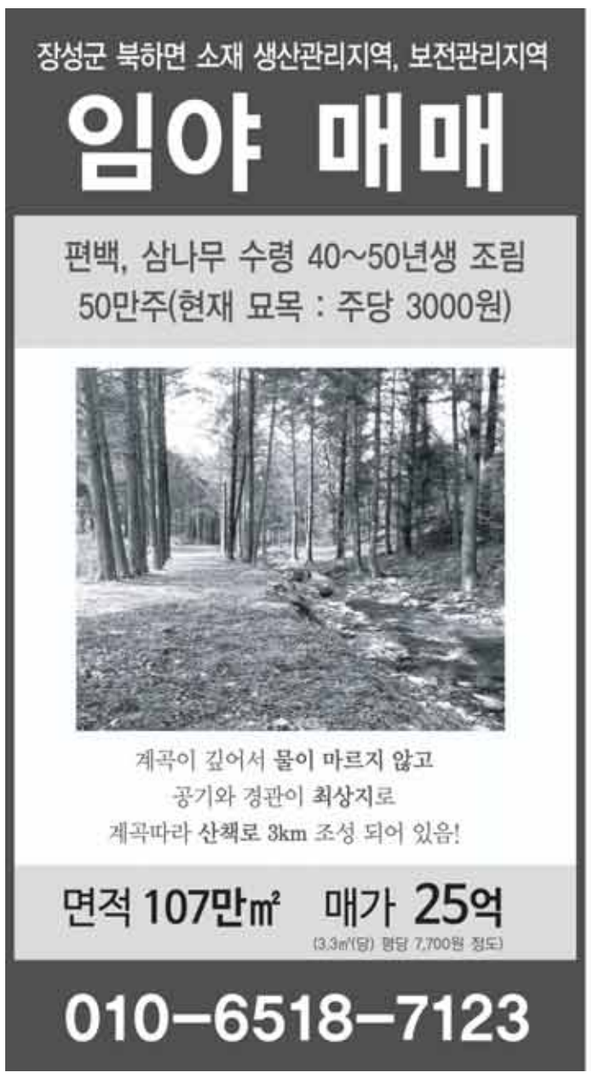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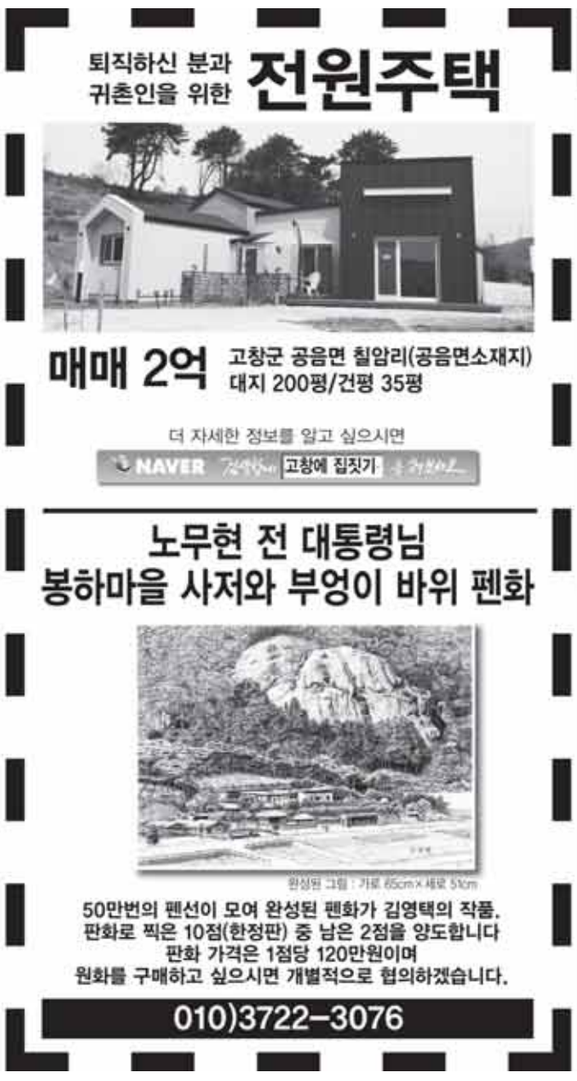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이번 공모에서는 전국 대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재단 등을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 결과 광주문화재단을 비롯해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제주문화예술진흥원, 대전문화재단, 전북대학교가 지역별 지역문화 인력양성 지정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문화재단의 교육내용은 이론·취업컨설팅·워크숍 등의 이론교육에 이어 지역 내 8개 문화기관협의회를 활용, 기관 순회교육·인턴십 운영 등 현장실습 과정으로 구성된다.

특히 재단과 아시아문화개발원, 광주비엔날레, 디자인센터, 시립미술관 등 8개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현장교육을 운영한다. 교육생이 문화현장과 행정기관에서 실무를 배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 우수 교육생 10명 내외를 선발. 해외연수 특전도 부여할 예정이다.

재단은 이에 앞서 '인생나눔교실' 호남·제주권 주관처로 선정돼 사업비 2억8000만원을 확보했다.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인생나눔교실을 위해 호남·제주권 멘토 50명을 선발하고 사무국을 설치했다. 호남·제주권에 사업대상지 50개소, 멘토링 400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가정법원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인문학과 문화예술의 만남'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문의 062-670-749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